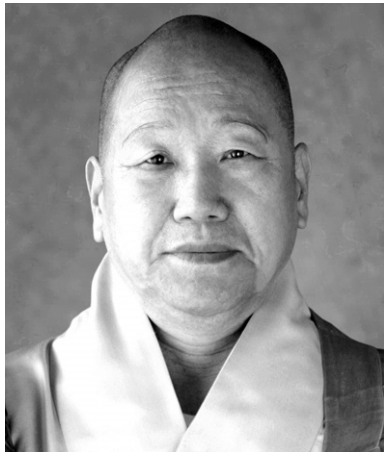


# 운문(雲門)의 삼전어(三傳語)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只這大死却活處(지대사각활처)는古佛(고불)도亦不會到(역불회도)라所以道(소이도)호대只許老胡知(지허노호지)하고不許老胡會(불허노호회)로다.

다못 이 크게 죽어 문득 산 곳은 옛 부처도 또한 알아 이르지 못함이라. 그런 연고로 이르노니, 다만 늙은 노승이 앓(知)을 허락하고 늙은 노승이 앓(會)을 허락하지 않음이로다.

금일은 기사년 하안거 입제일이라. 모든 대중은 각자 화두를 성성하게 챙겨 일념이 지속되게끔 혼신의 노력을 다 할지이다.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가?” 하고 빈틈이 없도록 하루에도 천 번 만 번 챙기되, 화두한 생각이 흐르는 물처럼 쉬지 않고 흘러가도록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의심으로 화두를 밀고 밀지이다. <중략>결제에 임하는 사부대중이여, 사부의 일생이 가지가지로 험난한 것은 다짐생으로 지어 온 못한 죄업의 그림자가 함시 따라 다녀 밝은 지혜가 가리어져 있기 때문이니, 그러한 죄업의 그림자가 다 소멸된 이

뎐 것이 진리의 도입니까?  
二, 如何是 提婆宗(여하시 제바종)이닛고. 둘째는, 어떤 것이 제바종입니까?  
三, 如何是 吹毛劍(여하시취모검)이닛고. 셋째는, 어떤 것이 취모검입니까?

모든 대중이여, 산승이 어찌서 팔만사천의 방편법문들은 마다하고 함시 이러한 어려운 법문을 하는가? 범부중생이 여러 생을 사람의 몸을 받들라 해도, 가장 높고 깊은 진리의 한마디 듣는 인연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희유한 일이고 매우 어렵기 때문이로다. 그 어렵고 심오한 법문이 낚전을 한 번만 스쳐 지나가더라도 많은 생에 지은 죄업의 그림자가 녹아 없어져 밝은 지혜가 드러나기 때문이니, 낚전을 스치는 한 마디의 법문일지라도 놓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 들어 금쪽같이 받아 들여야 함이로다.

만약 사람이 있어 운문선사의 이 삼전어를 알아 얻을 것 같으면 일가견을 구비한 일방지사(一方之師)가 되어 만인을 지도 하리라. 대중은 아시겠습니까?

直截根源人不識(직절근원인불식)이라忙忙業識幾時休(망망업식기시휴)리오. 바로 근원을 끊음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지라, 많고 많은 업식을 어느 때에 쉬리오.

는 장애가 없어 뜻하는 대로 만사를 원만히 성취해가는 법이로다.

그러니 모든 대중이 위없는 신심과 무한한 정진의 힘으로써, 이렇게 일상생활 가운데 마음의 지혜를 개발하는 참선법을 잘 닦고 행한다면, 나날이 남보다 앞서서 선견의 혜안을 갖추어 모든 악조건을 없애가리라. 금생에 견성하지 못하면 어느 생에 또다시 이 견성법을 만나리오. 모든 대중은 발심하고 또 발심하며 노력하고 노력할 지이다.

석일(昔日)에 운문선사께서 범상에 올라 대중에게 ‘삼전어(三傳語)’를 들어 법문하셨다.

一, 如何是道(여하시도)닛고. 첫째는, 어

# “불퇴전의 마음으로 고척참구하라”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수행자는 언제 어디서나 선지자(先知者)로서 표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행자가 지성인으로 존경받지 못하게 된 이유는 병든 사회현상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지혜롭게 치유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른 수행보다는 야만과 계급취권(戒禁取見)에 빠져 적당히 타협함으로써 올바른 선지자적 역할을 못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지성이 마비되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행자는 자성(自性)은 원래 소소영영(昭昭靈靈)하여 때(昧)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곧 각(覺)이며, 생명이 없으므로 번뇌도 없음을 확신하고, 불퇴전의 마음으로 고척참구(古則參究)에 매진하여야 합니다.

즉 청정계율을 지키고 수행에 전념할 때, 고요하면서도(寂) 의식이 맑게 깨어 있는 상태(惺)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때 비로소 삼매(三昧)에 이를 수 있으며, 이를 성성적적(惺惺寂寂)이라고 하니 이 경지에 이르도록 삼학(三學)을 수행의 근본 길잡이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생각하듯(如兒憶母) 하면 반드시 확절대오 할 때가 올 것이다(必有透徹之期).”라고 한 말씀들은 수행자로서의 마음을 다잡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략>

오로지 최상승선(最上勝禪)의 참구자는 이번 안거동안 방하착(放下着)하고, 호시우행(虎視牛行)의 마음으로 올바른 스승들의 가르침에 따라 온 정성을 기울여 추번뇌와 세번뇌를 항복받고, 반드시 공적영지(空寂靈知)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향유하기 바랍니다.

공적산당하안거(空寂山堂夏安居)정좌가득태고음(靜坐可得太古音)종견당전물개안(終見堂前物開眼)녹음조가초자정(綠陰鳥歌草自青)

지금껏 고요한 산사에서 하안거에 들어 고요히 앉아서 가히 태고의 소리를 듣고, 마침내 토굴 앞에 있는 만물이 눈을 뜬 녹음 속에서 새가 노래하며 초목은 스스로 푸르도다.

# 달마대사가 서쪽서 온 까닭은?

해인총림 방장 법전 스님



<상략>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을 묻는 화두는 선가(禪家)의 시작인 동시에 종문(宗門)의 끝입니다. 일천칠백개의 모든 공안이 이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이것으로써 끝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출가의 시작도 이것이요 열반의 끝도 이것입니다. 총림대중의 하안거 결제 역시 이것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며, 하안거의 마지막 날도 이것으로 끝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물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남약회양 선사가 조사서래의를 물어서 자 이에 혜안(慧安)선사는 매물차게 맞혔습니다. “자기생각은 말하지 않고 남의 생각을

질문을 백번 해봐야 한번도 절대로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질문하는 시간까지도 공부시간으로 돌리는 것이 훨씬 더 수치맞는 일입니다.

알고보면 진실한 불법은 전할 법도 없고 구할 법도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현사사비 선사의 “달마대사는 중국 땅으로 온 적도 없고 제2조 혜가도 인도로 가지 않았습니니다.”라는 답변에 설봉의선 선사는 기꺼이 인가를 했던 것입니다.

이번 하안거에 보응복우 선사의 서래의(西來意) 귀착점을 알아차린 남자는 비로소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뒤 일주일 동안 방문을 달아걸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던 일과 유마거사가 불이법(不二法)에 대하여 입을 다물고서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던 선인의 그 살림살이를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올 하안거에도 ‘조사서래의’ 화두를 성성적적하게 들고 정진한다면 해돋이 서쪽을 향해 백그레 웃게될 것입니다.

점석화유금옥이(點石化爲金玉)거니 권인제각시비난(勸人除却是非難)이로다

# “욕심의 곤궁에서 자유로워라”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



대도상재목전(大道常在目前)이나 수재목전난도(雖在目前難觀)라. 약욕오도진체(若欲悟道真體)인데 막제색언어(莫除聲色言語)하라.

큰 도는 언제나 눈앞에 있으나 눈앞에 있어도 보기는 어렵네. 만약 도의 진실 체를 알고자 한다면 성색과 언어를 제하려 하지 말지어다.

의 이치를 스승삼아야 간절해집니다. 잠시도 머물러 주지 않기 때문에 여유부릴 틈도 없습니다. 늙었든 젊었든 무상의 화살은 인정을 베를지 않고 냉정합니다. 공부인에게 이것이야말로 제일의 선지식이라 하겠습니까.

이 무상선지식을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느냐에 따라 공부의 성취가 판가름 납니다. 이미 제일의 선지식을 의지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수행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어떤 때는 까마득한 절벽 같기도 하고 길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중략>

그토록 간절하게 깨달음을 구하려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을 구원하고 위대로움을 허물어지게 하는 것이 차별하는 분별에서 비롯됩니다. 조금이라도 고개를 치켜들면 곧바로 단절해 버려야 합니다. 욕심의 곤궁에서 자유로워지게 하고 진실로 각자가 부자 되는 길을 깨우쳐 주는데 있습니다.

방하자재(放下自在)라 했습니다. 수행자의 흥중에는 차별심이 없어야 합니다. 나를 흐트러지게 하고 순리의 흐름을 따르면서 애써 특별한 도리를 알려하지도 말고 지혜의 그물로 무명을 걸박해서 다시는 생사의 수레바퀴가 돌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하략>

# “만법은 모두 마음에서 나왔다”

덕송총림 방장 설정 스님



마조선사가 말씀하시기를, 대도(大道)는 닦을 것이 없으니 물들지 않으면 된다. 무엇이 물들음인가? 생사심(生死心)으로 작위(作爲)와 지향(指向)이 있게 되면 모두가 물드는 것이다. 대도를 당장 알려고 하는가?

평상심(平常心)이 도(道)이다. 무엇이 평상심인가? 조작이 없고 시비가 없고 취사가 없고, 단상이 없으며 범성이 없는 것이다. 도는 바로 법계이다. 나아가서 항하사(恒河沙)만큼의 요묘한 작용까지도 이 법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싫다면 무엇 때문에 심지법문(心

地法門)을 말하며 무엇 때문에 다함없는 범등을 말하겠는가? 그러므로 일체법은 모두가 마음법이며 일체의 명칭은 모두가 마음의 명칭이다. 만법이 모두가 마음에서 나왔으니 마음은

만법의 근원이다. <중략> 모두 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세우도 되고, 싹 쏘여 버려도 된다. 모조리 요묘한 작용이며 그대르가 자기이니 진여를 떠나서 세울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운 그 자리가 바로 진여(眞如)이며 자기인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사마외도(邪魔外道)다. 일체법이 불법이고 모든 법이 바로 해탈이다. 해탈이 바로 진여이니 모든 법은 진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자! 말해보라. 이곳에 모든 대중들의 삶은 어떠한가? 정도의 삶인가? 예도의 삶인가?

歷劫分明若大虛(역겁분명약대허)何空勞心修禪定(하노공방수선정)自家珍寶處處在(자가진보처처재)通天盡地用無限(통천진지용무한)

“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양쪽)**
  -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गर(열반지) - 바이살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안양쪽)**
  -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 인천 - 몰바이 - 옐로라 / 아잔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 - 바이살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गर(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외암부나트) - 인천
-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안양쪽)**
  -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 인천 - 카트만두(스외암부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गर(열반지) - 바이살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가리아(시가리아성채) - 플른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볼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리엘리아 - 콜롬보 - 인천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7일 (대안양쪽)**
  - ▶ 부처님의 나라, ‘실론섬’이라 불리는 스리랑카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 인천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가리아(시가리아성채) - 미원탈레(마하세야 다고바 - 부처발) - 플른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볼라(불교석굴군) - 미틸레(500부구) - 캔디(불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리엘리아 - 콜롬보 - 인천

\*상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 1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 2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 3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팀 포함
- 4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 5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 6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 7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백 증정
- 8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 9 바라나시 갠지스강 쏘든(燈) 제공
- 10 여행자보험 포함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8대 佛敎聖地 지역 안내 ▶**

- 1 보드가야(Bodhgaya):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 2 사르나트(Sarnath): ‘초전법륜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 첫 설법을 하신 곳, 佛·法·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 3 스라바스티(Sravasti):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 / 능엄경 / 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 4 라즈기르(Rajgir):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축산(영취산)이 있는 곳.
- 5 바이살리(Vaishali):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을 설법하신 곳, 원왕봉일(猿王奉鬘)장소에 아소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 6 쿠시나गर(Kushinagar):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 7 룸비니(Lumbini): 부처 탄생지 마이테비 부인 사원과 구릉이 있는 곳.
- 8 상카시아(Sankasya):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이테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Find what you seek

## Incredible India